

# 민주 “黃 대권놀음” 한국 “최악의 막말”

주말인 8일에도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이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장외 행보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복구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외면한 채 장외 투어를 재개한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국민은 나중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경제 위기 극복과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만나 협력하지는 대통령의 제안까지 여러 조건을 걸면서 뿌리치더니 다시 민생 투어라는 명목으로 장외 정치를 재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에 국회가 더이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 해결과 국회 정상화는 뒤로 한 채 장외를 돌며 회담, 공감 국민을 얘기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려느냐”고 쓰아 붙였다.

그는 “한국당 강원·포항 국회의원은 추경을 볼모로 한국당의 정략과 정쟁을 지켜만 볼 것인지, 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황교안

## 與 “황교안 대표, 민생 투어 명목 장외 정치 재개”

## 한국 “빚더미 추경 흥정에 경악·좌절 넘어 분노”

안 대표 눈치 보는데 중요한지 자신들의 지역구민들을 위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는게 중요한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윤산, 통영, 거제, 창원, 영암, 목포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들은 실업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역 일지리를 살릴 것인지 황교안 대표의 처분만 기다릴 것인지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국유 선동가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었고 그 효과로 인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으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며 “반성과 해신 없이 ‘오만과 편견’의 폐쇄 회로에 빠져있는 한 중도도의 의견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신 의원은 “처절한 반성과 해신 없이 막말과 선동으로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자세는 오만으로 보이기 십상이다”라며 “촛불혁명을 거치며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국민들의

주권자 의식, 민주 의식이 높아졌음을 황교안 대표는 뼈저리게 느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등원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가재난과 피해국민의 이쁨까지 신심성 추경, 빚더미 추경과 흥정하지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거짓말 논평은 산불로 삼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에게 좌절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집권여당이 거론한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우습게 보는 최고의 막말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추경에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이제 피해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생국회 개원을 위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피해주민을 위한 예비비 집행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은 오늘 강원 산불재난 지역과, 포항의 지진재난 지역, 경남의 산업재난 지역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거든 국회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며 “재난지역에 재정지원을 받고 싶다면 여당 요구에 순순히 응하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오만이 나올 수 있는 지 의아할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난추경의 시급함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불필요한 통제조작용 단기일자리 예산이나 신심성 SOC예산을 끼워넣어 ‘재난추경’을 ‘빚더미추경’으로 부풀려 추경을 전도시킨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라며 “양심이 있다면 이제 와서 재난추경이 자유한국당 탓에 지연된다는 말은 입 밖에 내기 힘들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여론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공수처법,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서 고치지 않은 채 들어오라고 하면, 가서 이 정부의 엉터리 국정 둘러리를 서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강원 철원군의 양돈농장과 민통선지역을 방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 이낙연 “DMZ 넘는 멧돼지 포획·사살”

### 돼지열병 대응지침 하달

### “北에 통보 안 해도 돼”

군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이남으로 넘어오는 멧돼지를 즉각 포획 및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9일 “북한 야생 멧돼지 식별시 대응지침을 지난주 전 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에 따르면 군은 DMZ 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 남방 2km)을 넘는 멧돼지를 식별할 경우 즉시 포획 및 사살해야 한다.

또 멧돼지가 하루 최대 15km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음, 한강하구 등 강이나 바다를 통해 넘어오는 멧돼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포획되거나 사살된 멧돼지는 방역당국이 처리를 담당한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지침 하달하기 전 유엔군사령부와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DMZ 남북한계선을 넘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 및 사살 대응이 때문에 군사협약의 관련 없다”며 “북측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가 있는 강원 철원군의 양돈농장과 민통선지역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DMZ 남쪽으로 내려오는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사살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한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주문했다.

이 총리는 “돼지열병 전염의 주범인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 사살과 포획에 허용했으니 개체수를 최소화하더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 나경원 “文정권, 자칫 北 심기 건드릴까봐 조바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 맞잡은 사진을

수북한 책자를 나누준 것과 관련 ‘범죄 희생자 유가족에게 범죄자와 짝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분들께마저 북한 정권과의 친분을 과

시하고 싶었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군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침략에 맞서 싸우다 숨진 분들

의 유가족이다. 그런 분들께 적군의 수장 얼굴을 보란듯이 내밀었다”라며 같이 밝혔다.

그는 또 “6·25 전쟁 영웅의 아들들 청와대에 초청됐던 분께서 북한의 6·25 남침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어 “교묘히 편집한 채 서면 브리핑으로 내보냈다”며 “북한 정권이 듣기 싫어할 만한 이야기라 차마 내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북한 공산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으며, 6·25 남침의 공을 인정받아 김일성의 훈장까지 받은 인물의 이름을 감히 현충일 추념사에 올렸다”며 “우리 호국 영웅들이 목숨 바쳐 막으려 했던 그 공산주의 침략세력의 요직 인물을, 수많은 전사자 영혼들 앞에 추켜세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은 ‘호국’의 역사를 어떻게든 감추고 덮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지침하면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이 정권의 조바심이 느껴지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손 인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홍준표 “탄핵 책임 공천 물갈이? 한국당에 자유로운 사람 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9일 “탄핵 책임론으로 내년 공천 물갈이를 한다고 한다”며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프레임에서 벗어난 길 민이 한국의 보수·우파가 살 길이다”라며 “내년 총선도 탄핵프레임 속에서 허우적대려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탄핵을 전후로 한국 보수·우파들은

영혼 없이 떠돌아 다니는 좀비가 되어버린 느낌이다”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피어도 구분 못하고 옳고 그름도 구분 못하고 각자 서로 살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다”며 “잘못된 여론에도 맞서지 못 하고 죄책에 동조하는 것이 살 길인 양 하루살이 정치만 일삼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나해 이문열 선생을 만났을 때 서로 일지된 생각이었다”며 “이적도 한국당은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